

치기공과 재학생의 진로계획에 관한 실태 조사

-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

배 봉 진, 이 화 식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The research on the Career Plan of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Revolve Around D College Students)

Bong-Jin Bae, Hwa-Sik Le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career education of the college student needs a new awareness. This research provides fundamental data from analyzing necessities of student's career education according to plans of a career education.

Methods: Make use of SAS 8.0 of window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n investigate Dental Technology 570 students in Daegu. And also it analyzes difference of ispectable t-test and ANOVA.

Results: According to a gender, a job experience, where they are come from,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of an information and an entrance motive for choosing a major (<.05). The time of choosing the major are different meaningfully (<.001). An awareness about the method of a career achievement i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05). As getting old, the method of a career achievement is higher and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a grade, job experience and a entrance screening(<.01). In accordance with a gender, a grade, entrance screening,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of a degree for obtaining the career information activities(<.01). In accordance with an age, when they choose a major, there is a difference(<.001). In accordance with a gender and a age,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of a career plan(<.001). The age difference is slight. In accordance with a gender and a age,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how to effort for the career(<.001), and also according to an entrance screening, an entrance motive(<.05). These mean that the first priority for choosing the career and going into the world is a school record.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of people that the student choose for consulting the career(<.01). According to the job experience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001).

Conclusion: By investigating and analysing the student's career plan, we need to seek how students choose their career reasonably and desirably. And also we need to teach a career education systematically.

○Key words : career plan, dental technology students

교신저자	성명	배 봉 진	전화	053-320-1323	E-mail	baboji@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접수일	2011. 11. 2		수정일	2011. 12. 8		확정일	2011. 12. 28

I. 서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거에 비해 모든 분야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복잡 다단하게 변할수록 직업의 세계는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다원화 되어 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전공 선택과 관련되고 나아가 직업을 정하고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진로결정의 문제는 능력발휘의 기회나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생활양식 등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황혜리와 류수정, 2009). 또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 동안 가장 어려운 과업이다.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이 살아 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또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도 개인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의 성적과 가정환경만으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업이란 생활 유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 사회적인 봉사를 누리며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자아의식과 진로탐색 지도를 통하여 진로의식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설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유은숙, 2003).

2004년 통계청 사회 통계 자료 중 교육 통계 자료에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에서 실업고 및 대졸이상이 41.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

여 전공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지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로지도에 위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재학생들의 진로 교육 필요성에 비추어 진로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로의식의 후속 논문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대구에 소재하는 D대학 치기공과 학생 570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원을 선정하여 설문 문항 설명을 통한 사전 교육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535부로 회수율 93.86%이었으나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5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의 선택시기, 선택정보, 입학동기, 일반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여부의 정도, 진로 성취 방법에 대한 인지도, 진로 정보 수집 활동의 정도, 진로에 대한 노력과 진로계획의 중요한 요소, 진로를 위한 노력 형태, 그리고 진로 상담의 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1) 설문지의 자료 분석은 Window용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2) 각 요인별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3) 각 분석에 사용한 유의성 검정은 chi-square검정을 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number	percent
gender	male	297	58.70
	female	209	41.30
grade	freshman	173	34.19
	sophomore	164	32.41
	Junior	169	33.40
age	20 years below	143	28.26
	21~23 years	197	38.93
	more than 24 years	166	32.81
job Experience	have	116	22.92
	doesn't have	390	77.08
born from	big city	248	49.01
	small city	258	50.99
affiliate	general	381	75.30
	business	53	10.47
	industrial	55	10.87
	agriculture	4	0.79
	etc	13	2.57
entrance screen	general	342	67.59
	special	91	17.98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4	0.79
	farming, fishing	33	6.52
	college	26	5.14
	etc	10	1.98
major choice period	before high school senior	80	15.81
	high school senior first semester	172	33.99
	enter school advice	59	11.66
	application period	77	15.22
	scholastic ability test result	35	6.92
	etc	83	16.40

	characteristic	number	percent
major choice Information	yourself	210	41.50
	parents, close friends advice	179	35.38
	teacher advice	28	5.53
	senior, friend advice	44	8.70
	etc	45	8.89
entrance motive	aptitude	161	31.82
	grade	29	5.73
	employment rate	169	33.40
	economic power	85	16.80
	etc	62	12.25
	total	506	100.00

특성을 연령별로 보면 21세-23세(197명 38.93%), 24세 이상(166명 32.81%), 20세 이하(143명 28.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경험의 무(390명 77.08%)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장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계열별로는 일반계(381명 75.30%), 공업계(55명 10.87%)로 대부분 일반계가 3/4정도이고 1/4이 전문계 학생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는 일반전형(342명 67.59%), 특별전형(91명 17.59%)로 지원자의 2/3정도가 일반전형으로 나머지 1/3정도가 다른 전형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 시기는 고3 1학기(172명 33.99%), 기타(83명 16.40%), 고3 이전(80명 15.81%)로 학과의 선택시기는 고3 1학기 와 진학 상담시 그리고 원서 접수시가 60% 정도로 대부분이며 고3 이전에 결정한 학생은 15% 정도로 일찍 결정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210명

41.50%), 부모, 친지의 권유(179명 35.38%)로 본인과 부모, 친지의 권유가 7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의 입학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169명 33.40%), 적성을 고려(161명 31.82%), 경제적 고려(85명 16.80%)의 순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률이 높아서가 33% 정도로 취업률에 비중이 높고 적성을 고려해서 입학할 하게 되는 경우가 32% 정도로 나타났다.

2. 진로계획의 수준

1) 진로결정의 수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의 수준을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그리고 입학 동기별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a course decision

	characteristic	m	sd	F/ t	P
gender	male	3.26	1.05	1.98	0.0478*
	female	3.07	1.00		
grade	freshman	3.14	0.99	0.67	0.5140
	sophomore	3.26	1.04		
	Junior	3.15	1.07		
age	20 years below	3.05	1.01	2.45	0.0875
	21~23 years	3.17	1.05		
	more than 24 years	3.31	1.01		

	characteristic	m	sd	F/ t	P
job experience	have	3.36	0.95	2.18	0.0300*
	doesn't have	3.13	1.05		
born from	big city	3.32	1.07	3.08	0.0022**
	small city	3.04	0.98		
affiliate	general	3.18	1.01	3.13	0.0147*
	business	2.89	0.95		
	industrial	3.53	1.12		
	agriculture	2.50	0.58		
	etc	3.23	1.17		
entrance Screen	general	3.10	1.02	3.33	0.0057**
	special	3.26	1.13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3.75	0.96		
	farming, fishing	3.09	0.98		
	college	3.88	0.59		
	etc	3.30	0.95		
major choice period	before high school senior	3.45	1.02	5.87	0.0001***
	high school senior first semester	3.15	0.98		
	enter school advice	3.00	1.03		
	application period	2.81	1.10		
	scholastic ability test result	3.03	1.10		
	etc	3.53	0.90		
major choice information	yourself	3.23	1.01	2.48	0.0432*
	parents, close friends advice	3.13	1.02		
	teacher advice	2.79	1.03		
	senior, friend advice	3.05	1.10		
	etc	3.49	1.04		
entrance motive	aptitude	3.37	1.02	3.29	0.0112*
	grade	2.83	1.31		
	employment rate	3.02	0.98		
	economic power	3.20	1.03		
	etc	3.26	0.97		

p<.05*, p<.01**, p<.001***

진로결정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남학생(3.26), 여학생(3.07)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36)와 무(3.13)로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3.32)와 중소도시(3.04)로 나타났으며 직장

경험(p<.05)과 출신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출신계열별로는 공업계(3.53), 기타(3.23), 일반계(3.18), 상업계(2.89)의 순으로 나타났고 출신계열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입학전형별로는 대졸전형(3.88), 특별전형(독자, 산업체, 자격증 3.75), 기타(3.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ho < .01$).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3.53), 고3 이전(3.45), 고3 1학기(3.15), 수능점수 결과(3.03)로 나타나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ho < .001$).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기타(3.49), 본인(3.23), 부모, 친지의 권유(3.13), 선배, 친구의 권유(3.05)로 나타났으며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ho < .05$). 학과의 입학 동기에서는 적성을 고려(3.37), 기타(3.26), 경제적 고려(3.20), 취업률이 높아서(3.02)의 순으로 나타나 학과의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ho < .05$).

2)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를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그리고 입학 동기별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 degree of method for a career achievement

	characteristic	m	sd	F/ t	P
gender	male	3.28	0.99	2.55	0.0111*
	female	3.06	0.93		
grade	freshman	3.00	0.98	5.01	0.0070**
	sophomore	3.28	1.00		
	junior	3.29	0.91		
age	20 years below	2.90	0.94	10.78	0.0001***
	21~23 years	3.21	0.94		
	more than 24 years	3.40	0.97		
job experience	have	3.42	1.01	2.99	0.0029**
	doesn't have	3.12	0.95		
born from	big city	3.26	1.00	1.69	0.0910
	small city	3.12	0.94		
affiliate	general	3.18	0.95	2.16	0.0727
	business	2.96	0.83		
	industrial	3.31	1.20		
	agriculture	3.00	0.82		
	etc	3.77	0.73		
entrance screen	general	3.16	0.97	3.61	0.0033**
	special	3.22	1.02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3.50	1.00		
	farming, fishing	2.82	0.73		
	college	3.85	0.73		
	etc	3.10	1.10		

	characteristic	m	sd	F/ t	P
major choice period	before high school senior	3.36	0.94	4.96	0.0002***
	high school senior first semester	3.17	0.91		
	enter school advice	2.98	1.04		
	application period	2.84	1.04		
	scholastic ability test result	3.20	0.93		
	etc	3.51	0.89		
major choice information	yourself	3.24	0.96	1.01	0.4031
	parents, close friends advice	3.16	0.94		
	teacher advice	2.93	0.98		
	senior, friend advice	3.09	1.01		
	etc	3.31	1.06		
entrance motive	aptitude	3.29	0.94	1.76	0.1351
	grade	3.00	1.10		
	employment rate	3.09	0.96		
	economic power	3.13	0.97		
	etc	3.37	0.98		

p<.05*, p<.01**, p<.001***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남학생(3.28), 여학생(3.06)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3학년(3.29), 2학년(3.28), 1학년(3.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p<.05)과 학년별(p<.01)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4세 이상(3.40), 21세-23세(3.21), 20세 이하(2.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42)와 무(3.12)로 나타났으며 직장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입학전형별로는 대졸전형(3.85), 특별전형(독자, 산업

체, 자격증 3.50), 특별전형(3.22), 일반전형(3.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3.51), 고3 이전(3.36), 수능점수 결과(3.20), 고3 1학기(3.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정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정도를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 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그리고 입학 동기별로 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A degree of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career

	characteristic	m	sd	F/ t	P
gender	male	2.82	0.90	2.68	0.0075**
	female	2.61	0.81		
grade	freshman	2.55	0.82	5.98	0.0027**
	sophomore	2.80	0.91		
	Junior	2.86	0.84		

	characteristic	m	sd	F/ t	P
age	20 years below	2.44	0.78	17.85	0.0001***
	21~23 years	2.72	0.85		
	more than 24 years	3.01	0.88		
job experience	have	2.93	0.97	2.79	0.0055**
	doesn't have	2.68	0.83		
born from	big city	2.83	0.92	2.44	0.0151*
	small city	2.64	0.81		
affiliate	general	2.72	0.84	2.43	0.0468*
	business	2.57	0.80		
	industrial	2.89	1.03		
	agriculture	2.75	0.50		
	etc	3.31	1.11		
entrance screen	general	2.68	0.84	3.08	0.0096**
	special	2.89	1.02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3.50	0.58		
	farming, fishing	2.48	0.76		
	college	3.12	0.77		
	etc	2.70	0.67		
major choice period	before high school senior	2.88	0.80	5.72	0.0001***
	high school senior first semester	2.61	0.74		
	enter school advice	2.78	1.07		
	application period	2.44	0.94		
	scholastic ability test result	2.80	0.76		
	etc	3.07	0.87		
major choice information	yourself	2.75	0.88	0.66	0.6166
	parents, close friends advice	2.72	0.83		
	teacher advice	2.57	0.92		
	senior, friend advice	2.68	0.93		
	etc	2.89	0.88		
entrance motive	aptitude	2.82	0.88	2.28	0.0600
	grade	2.69	1.00		
	employment rate	2.67	0.84		
	economic power	2.56	0.81		
	etc	2.94	0.88		

p<.05*, p<.01**, p<.001***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이 남학생(2.82), 여학생(2.61)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3학년(2.86), 2학년(2.80), 1학년(2.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연령별로는 24세 이상(3.01), 21세-23세(2.72), 20세 이하(2.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2.93)와 무(2.68)로 나타났고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2.83)와 중소도시(2.64)로 나타났으며 직장경험($p < .01$)과 출신지역($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신계열별로는 기타(3.31), 공업계(2.89), 농업계(2.75), 일반계의 순으로 나타났고 입학전형별로는

특별전형(독자, 산업체, 자격증 3.50), 대졸전형(3.12), 특별전형(2.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3.07), 고3 이전(2.88), 수능점수 결과(2.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진로계획의 비교

1) 진로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조사 대상자의 진로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성별, 학년, 연령 그리고 직장경험별로 분석결과는 <Table 5>과 같다.

진로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

Table 5. A important elements when they plan a career

characteristic	separation	aptitude, talent	technical knowledge	information of a job	hope of parents	a vision of a job	χ^2 (p)
gender	man	135(45.45)	47(15.82)	42(14.14)	3(1.01)	70(23.57)	20.3906 (0.0004)***
	woman	127(60.77)	16(7.66)	33(15.79)	5(2.39)	28(13.40)	
grade	freshmen	88(50.87)	30(17.34)	28(16.18)	1(0.58)	26(15.03)	15.2251 (0.0549)
	sophomore	90(54.88)	20(12.20)	22(13.41)	4(2.44)	28(15.07)	
	junior	84(49.70)	13(7.69)	25(14.79)	3(1.78)	44(26.04)	
Aa	20 years below	77(53.85)	24(16.78)	21(14.69)	0(0.00)	21(14.69)	37.1999 (0.0001)***
	21~23 years	115(58.38)	25(12.69)	31(15.74)	4(2.03)	22(11.17)	
	more than 24 years	70(42.17)	14(8.43)	23(13.86)	4(2.41)	55(33.13)	
job experience	have	61(52.59)	15(12.93)	13(11.21)	3(2.59)	24(20.69)	2.4716 (0.6497)
	doesn't have	201(51.54)	48(12.31)	62(15.90)	5(1.28)	74(18.97)	

$p < .05^*$, $p < .01^{**}$, $p < .001^{***}$

과는 <Table 5>와 같이 남학생은 소질과 적성(135명 45.45%), 직업에 대한 장래(70명 23.57%), 전문적인 지식(47명 15.82%)의 순이나 여학생은 소질과 적성(127명 60.77%), 직업에 대한 정보(33명 15.79%), 직업에 대한 장래(28명 13.40%)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 진로계획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소질과 적성, 직업에 대한 장래의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소질과 적성, 직업에 대한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소질과 적성(77명 53.85%),

전문적인 지식(24명 16.78%),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장래(21명 14.69%)의 순이고 21세-23세는 소질과 적성(115명 58.38%), 직업에 대한 정보(31명 15.74%), 전문적인 지식(25명 12.69%)의 순으로 나타났고 24세 이상은 소질과 적성(70명 42.17%), 직업에 대한 장래(55명 33.13%), 직업에 대한 정보(23명 13.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2)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요인

조사 대상자의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요인을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입학전형 그리고 입학 동기별로 분석

Table 6. An effort element for a career

characteristic	grade	speciality	interests	em- ployment	schola- stic	etc	χ^2 (p)
gender							
man	140(47.14)	50(16.84)	14(4.71)	26(8.75)	12(4.04)	55(18.52)	3.8336 (0.5736)
woman	102(48.80)	25(11.96)	12(5.74)	24(11.48)	11(5.26)	35(16.75)	
grade							
freshmen	105(60.69)	23(13.29)	12(6.94)	5(2.89)	5(2.89)	23(13.29)	67.9008 (0.0001)***
sophomore	90(54.88)	27(16.46)	7(4.27)	10(6.10)	5(3.05)	25(15.24)	
junior	47(27.81)	25(14.79)	7(4.14)	35(20.71)	13(7.69)	42(24.85)	
age							
20 years below	88(61.54)	19(13.29)	12(8.39)	2(1.40)	5(3.50)	17(11.89)	34.3040 (0.0002)***
21~23 years	84(42.64)	30(15.23)	7(3.55)	22(11.17)	10(5.08)	44(22.34)	
more than 24 years	70(42.17)	26(15.66)	7(4.22)	26(15.66)	8(4.82)	29(17.47)	
entrance screen							
general	169(49.42)	59(17.25)	14(4.09)	30(8.77)	16(4.68)	54(15.79)	40.0075 (0.0291)*
special	37(40.66)	10(10.99)	8(8.79)	11(12.09)	3(3.30)	22(24.18)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0(0.00)	0(0.00)	1(25.00)	0(0.00)	1(25.00)	2(50.00)	
farming, fishing	16(43.48)	4(12.12)	3(9.09)	2(6.06)	2(6.06)	6(18.18)	
college	12(46.15)	2(7.69)	0(0.00)	7(26.92)	1(3.85)	4(15.38)	
etc	8(80.00)	0(0.00)	0(0.00)	0(0.00)	0(0.00)	2(20.00)	
entrance motive							
aptitude	79(49.07)	34(21.12)	8(4.97)	9(5.59)	7(4.35)	24(14.91)	32.9000 (0.0346)*
grade	17(58.62)	5(17.24)	1(3.45)	3(10.34)	2(6.90)	1(3.45)	
employment rate	85(50.30)	17(10.06)	11(6.51)	22(13.02)	10(5.92)	24(14.20)	
economic power	37(43.53)	12(14.12)	4(4.71)	8(9.41)	2(2.35)	22(25.88)	
etc	24(38.71)	7(11.29)	2(3.23)	8(12.90)	2(3.23)	19(30.65)	

p<.05*, p<.01**, p<.001***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이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성적향상(105명 60.69%), 특기 신장과 기타(23명 13.29%), 취미활동(12명 6.94%)의 순이며 2학년은 성적향상(90명 54.88%), 특기 신장(27명 16.46%), 기타(25명 15.24%), 취업준비(10명 6.10%)의 순으로 나타났고 3학년은 성적향상(47명 27.81%), 기타(42명 24.85%), 취업준비(35명 20.71%), 특기 신장(25명 14.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성적향상(88명 61.54%), 특기 신장(19명 13.29%), 기타(17명 11.89%)의 순이고 21세~23세는 성적향상(84명 42.64%), 기타(44명 22.34%), 특기 신장(30명 15.23%), 취업준비(22명 1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이상은 성적향상(70명 42.17%), 기타(29명 17.47%), 특기 신장과 취업준비(26명 15.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입학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은 성적향상(169명 49.42%), 특기 신장(59명 17.25%), 기타(54명 15.79%),

취업준비(30명 8.77%)의 순이고 특별전형은 성적향상(37명 40.66%), 기타(22명 24.18%), 취업준비(11명 12.09%), 특기 신장(10명 10.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전형은 성적향상(16명 43.48%), 기타(6명 18.18%), 특기 신장(4명 12.12%)의 순이며 대졸전형에서는 성적향상(12명 46.15%), 취업준비(7명 26.92%), 기타(4명 15.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입학동기별로 보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성적향상(79명 49.07%), 특기 신장(34명 21.12%), 기타(24명 14.91%)의 순이고 성적을 고려한 경우에는 성적향상(17명 58.62%), 신장(5명 17.24%), 취업준비(3명 10.34%)의 순이며 취업률이 높아서의 경우는 성적향상(85명 50.30%), 기타(24명 14.20%), 취업준비(22명 13.02%), 특기 신장(17명 10.06%)의 순이고 경제적 고려에서는 성적향상(37명 43.53%), 기타(22명 25.88%), 특

Table 7. A needer for consulting career

characteristic	parents, family	friends	senior-junior	professor	by oneself	etc	χ^2 (p)
gender							
man	107(36.03)	13(4.38)	21(4.07)	57(19.19)	89(29.97)	10(3.37)	6.9401 (0.2251)
woman	90(43.06)	4(1.91)	16(7.66)	27(12.92)	66(31.58)	6(2.87)	
grade							
freshmen	75(43.35)	3(1.73)	10(5.78)	37(21.39)	44(25.43)	4(2.31)	23.8967 (0.0079)**
sophomore	64(39.02)	6(3.66)	11(6.71)	33(20.12)	44(26.83)	6(3.66)	
junior	58(34.32)	8(4.73)	16(9.47)	14(8.28)	67(39.64)	6(3.55)	
age							
20 years below	69(48.25)	3(2.10)	8(5.59)	28(19.58)	31(21.68)	4(2.80)	18.7816 (0.0431)*
21~23 years	80(40.61)	6(3.05)	16(8.12)	28(14.21)	62(31.47)	5(2.54)	
more than 24 years	48(28.92)	8(4.82)	13(7.83)	28(16.87)	62(37.35)	7(4.22)	
job experience							
have	31(26.72)	1(0.86)	8(6.90)	22(18.97)	53(45.69)	1(0.86)	22.7559 (0.0004)***
doesn't have	166(42.56)	16(4.10)	29(7.44)	62(15.90)	102(26.15)	15(3.85)	
entrance screen							
general	139(40.64)	10(2.92)	27(7.89)	53(15.50)	99(28.95)	14(4.09)	40.0075 (0.0291)*
special	38(41.76)	2(2.20)	8(8.79)	16(17.58)	26(28.57)	1(1.10)	
special(only son, .industry. licence)	0(0.00)	0(0.00)	1(25.00)	0(0.00)	3(75.00)	0(0.00)	
farming, fishing	12(36.36)	3(9.09)	0(0.00)	8(24.24)	10(30.30)	0(0.00)	
college	4(15.38)	1(3.85)	1(3.85)	7(26.92)	12(46.15)	1(3.85)	
etc	4(40.00)	1(10.00)	0(0.00)	0(0.00)	5(50.00)	0(0.00)	
etc	4(40.00)	1(10.00)	0(0.00)	0(0.00)	5(50.00)	0(0.00)	
major choice information							
yourself	70(33.33)	7(3.33)	11(5.24)	35(16.67)	80(38.10)	7(3.33)	34.0705 (0.0257)*
parents, close friends advice	89(49.72)	2(1.12)	11(6.15)	31(17.32)	41(22.91)	5(2.79)	
teacher advice	8(28.57)	2(7.14)	4(14.29)	3(10.71)	10(35.71)	1(3.57)	
senior, friend advice	14(31.82)	4(9.09)	7(15.91)	7(15.91)	11(25.00)	1(2.27)	
etc	16(35.56)	2(4.44)	4(8.89)	8(17.78)	13(28.89)	2(4.44)	
etc	16(35.56)	2(4.44)	4(8.89)	8(17.78)	13(28.89)	2(4.44)	

$p < .05$, $p < .01$, $p < .001$ ***

기 신장(12명 14.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3) 진로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람

조사 대상자의 진로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입학전형 그리고 학과 선택 정보별로 분석결과는 <Table 7>와 같다.

진로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와 같이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부모와 가족(75명 43.35%), 본인 스스로(44명 25.43%), 지도교수(37명 21.39%), 선후배(10명 5.78%)의 순이며 2학년은 부모와 가족(64명 39.02%), 본인 스스로(44명 26.83%), 지도교수(33명 20.12%)의 순으로 나타났고 3학년은 본인 스스로(67명 39.64%), 부모와 가족(58명 34.32%), 선후배(16명 9.47%), 지도교수(14명 8.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부모와 가족(69명 48.25%), 본인 스스로(31명 21.68%), 지도교수(28명 19.58%), 선후배(8명 5.59%)의 순이며 21세-23세는 부모와 가족(80명 40.61%), 본인 스스로(62명 31.47%), 지도교수(28명 14.21%), 선후배(16명 8.12%)의 순으로 나타났고 24세 이상은 본인 스스로(62명 37.35%), 부모와 가족(48명 28.92%), 지도교수(28명 16.87%), 선후배(13명 7.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직장경험별로 보면 경험을 한 학생은 본인 스스로(53명 45.69%), 부모와 가족(31명 26.72%), 지도교수(22명 18.97%)의 순이고 직장경험이 없는 학생은 부모와 가족(166명 42.56%), 본인 스스로(102명 26.15%), 지도교수(62명 15.90%), 선후배(29명 7.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경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입학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은 부모와 가족(139명 40.64%), 본인 스스로(99명 28.95%), 지도교수(53명 15.50%), 선후배(27명 7.89%)의 순이며 특별전형은 부모와 가족(38명 41.76%), 본인 스스로(26명 28.57%), 지도교수(16명 17.58%)의 순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전형은 부모와 가족(12명 36.36%), 본인 스스로(10명 30.30%), 지도교수(8명 24.24%)의 순으로 대졸전형에서는 본인 스스로(12명 46.15%), 지도교수(7명 26.92%)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학과선택 정보의 경로를 보면 본인에서는 본인 스스로(80명 38.10%), 부모와 가족(70명 33.33%), 지도교수(35명 16.67%)의 순이며 부모, 친지의 권유는 부모와 가족(89명 49.72%), 본인 스스로(41명 22.91%), 지도교수(31명 17.32%)의 순이고 교사의 권유에서는 본인 스스로(10명 35.71%), 부모와 가족(8명 28.57%), 선후배(4명 14.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배, 친구의 권유에서는 부모와 가족(14명 31.82%), 본인 스스로(11명 25.00%), 선후배와 지도교수(7명 15.91%)의 순으로 본인과 교사의 권유에서는 본인 스스로, 부모와 가족의 순이나 부모, 친지의 권유와 선배, 친구의 권유에서는 부모와 가족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선택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IV. 고 찰

개인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진로의 결정은 개인의 특성(적성, 흥미 그리고 소질)에 맞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사회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직업관도 변하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자의식과 진로탐색 지도를 통하여 진로의식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계획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져 연구를 시행하였다

진로 결정의 수준에서는 성별로 남학생(3.26)이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36)로 경험한 학생이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3.32)가 높고 출신계열별로는 공업계(3.53)로 입학전형별로는 대졸전형(3.88), 특별전형(독자 3.75)의 순이며 학과 선택시기는 고3 이전(3.45)으로 직장 경험이 있고 대도시에 살고 전문계 학생들과 대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진로 결정을 사전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진로 결정 시기에서 전체의 57.6%가 보통

이다가 가장 높고 너무 낮다 35.1%로 나타났으며 노력의 정도는 노력중이다 61.8%로 많으며 노력하지 않는다 20.9%, 아주 많이 노력한다 11%로 나타나 대다수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돈, 2004).

전체 대학생 중 90%의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의 흥미, 능력, 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영란, 2007). 그리고 취업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성과 흥미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능력은 21.9%로 나타났다(주은주, 2006). 진로결정은 직장경험이 있고 대도시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 진로결정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이다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대학생들은 흥미와 적성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 것은 장래의 직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고민하고 체험한 후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3.23), 부모, 친지의 권유(3.13)로 나타나 학생들은 교사의 권유보다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주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리고 학과의 입학 동기에서는 경제적 고려와 취업률이 높아서 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 여부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에서는 고3 이전에 직장 경험이 있는 연령이 높은 전문계 학생들이 고3되기 이전부터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전체 학생중 74%의 학생들이 진로정보를 인터넷에서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거의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나 인터뷰등 다양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윤영란, 2007). 본인의 진로에 대한 준비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다 43.6%로 가장 높고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 25.4% 그리고 보통 21.1%로 조사 되었다(박란, 2009). 그리고 진로에 대한 정보는 전체의 매스컴 45%로

가장 높고 친구 25.1%, 선생님 19.9% 그리고 부모님 9.9%로 대부분 학생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돈, 2004).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정도에서는 학년이 높아지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 수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의 3/4 정도가 인터넷을 다른 내용에 비하여 중시 하다 보니 다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된다.

직장을 경험한 학생과 대도시에 사는 학생 그리고 일반계 보다는 전문계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잘하고 일반전형 보다는 특별전형, 대졸전형 그리고 고3 이전에 전문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 수집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관련 업무가 one stop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직업에 대한 준비를 최근에 1년 이전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59%로 실제 직업에 대한 준비는 졸업직전이나 졸업 1년 전에 준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윤영란, 2007).

진로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성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은 20세 이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21세-23세는 직업에 대한 정보이나 24세 이상은 직업에 대한 장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를 준비 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다 70.2%로 가장 높고 자격증 취득 13.6%, 성적향상 9.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박수돈, 2004).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요인에서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특기를 신장하는 면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형별에서는 성적향상이 우선이며 특기 신장 그리고 진학 준비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성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람에서 학년별로 진로 상담의 대상자를 1, 2학년은 부모와 가족, 본인 스스로, 지도교수의 순으로 3학년은 본인 스스로, 부모와 가족, 선후배 그리고 지도교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 24세 이상은 본인 스스로, 부모와 가족, 지도교수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지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78%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부모님이라고 답함으로써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윤영란, 2007). 진로에 대한 상담은 70%의 학생이 상담경험이 있고 전공 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대상자는 담임교사 37.3%로 가장 높고 전공교사 32.3%, 부모님이나 친지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박란, 2009). 그리고 진로 상담은 부모님 28.3%로 가장 높고 친구 25.6%, 스스로 24.6% 그리고 선생님 21.5%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진로지도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함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박수돈, 2004).

직장경험의 유무에 따라 경험을 한 학생은 본인 스스로, 부모와 가족, 지도교수 그리고 선후배이나 경험이 없는 학생은 부모와 가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을 한 학생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비하여 경험이 없는 학생은 부모나 가족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전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들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데 비하여 본인과 교사의 권유에서는 부모와 가족의 의사가 진로 상담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대학시절에 본보기 행동을 제공하는 부모, 교수 그리고 조연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개발과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대학생 진로지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로지도를 위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재학생들의 진로 교육 필요성에 비추어 치기공과에 재학중인 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진로계획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결정의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와 입학동기($p < .05$)

와 출신지역과 입학전형별($p < .01$) 그리고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2.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에서 성별($p < .05$)과 입학전형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연령이 많아질수록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과 직장경험, 연령, 그리고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정도에서는 성별과 학년별($p < .01$) 그리고 연령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년이 높아지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보 수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경험($p < .01$)과 출신지역($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전형별($p < .01$)과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진로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서 성별($p < .001$)과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5.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요인에서 학년별($p < .001$)과 연령별($p < .001$) 그리고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연령이 많아질수록 특기를 신장하는 면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6. 진로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람에서 학년별($p < .01$)과 연령별($p < .05$), 그리고 직장경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생들은 진로계획을 수립할 때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주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될수 있도록 진로관련 업무가 one stop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태제, 배중훈, 강대구.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 학사, 30, 2003.
-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00.
- 남경민.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박기문과 이규녀.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2), 103-127, 2009.
- 박수돈.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농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32-56, 2004.
- 박란. 조리전공 고등학생의 전공 인식도 및 진로적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석사학위논문, 43-45, 2009.
- 주은주와 이현옥. w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 6(2), 119-125, 2006.
- 이수진.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향장 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3-4, 2004.
- 이원재. 대학생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직업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46-57, 2006.
- 이혜은. 치과기공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9(2), 35-47, 2007.
-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은숙. 진로탐색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2003.
- 윤영란.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123-159, 2007.
- 정현진. 관광계열 학생들의 진로의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4-105, 2005.
- 최요섭.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향장 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3-4, 2004.
- 채수영.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대학원 기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4, 2006.
- 황혜리와 류수정.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 성숙 및 영적안녕과의 관계. 기독교상담학회지, 18, 355-380, 2009